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

김형근*

* 목포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Maritime Silk Road of Ancient Far East Asia

Kim Hyeong Geun*

* Mokpo Maritime University

핵심용어 : 고대 동아시아, 해상항로,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

Key Words : Ancient Far East, Sea Route, Silk Road, Maritime Silk Road,

1. 개요 및 연구목적

고대 아랍국가들의 동아시아 해상항로, 고대 페르시아 만에 위치한 오만(Oman)의 동아시아 해상항로, 인도의 고대 해상항로, 인도네시아의 고대 해상항로, 그리고 이들 고대 해상항로가 중국을 거쳐 한반도의 신라까지 이어진, 고대 해상 실크로드를 연구하여, 고대 아랍 및 페르시아 국가들과 통일신라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 연구를 위하여, 각종 고대문헌의 고대 해양사에 대한 기록, 고대 문화, 유적 및 유물, 현장답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이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3.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8~9세기를 전후한 고대 페르시아 및 아랍국가들과 중국의 당나라 및 통일신라로 이어진 해상 실크로드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고대 동아시아 해상 실크로드를 규명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하여, 고대 아랍국가들의 고대 동아시아 해상항로, 고대 페르시아 만에 위치한 오만(Oman)의 동아시아 해상항로, 인도의 고대 해상항로, 그리고 이들 고대 해상 실크로드가 중국을 거쳐 통일신라까지 진 것과 이를 통해서 서역국가인 아랍 및 페르시아, 인도 국가들과 통일신라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서역에서 고대 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하는 주요 선단은 Oman, Iran 등 고대 페르시아 국가 및 아랍국가들과 인도, 인도네시아 선단이였다.

2) 고대 페르시아 국가인 Oman은 고대 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하여, 서기 651년에 중국에 첫 번째 선단을 보냈고, 이후 서기 798년까지 39번의 선단을 중국에 보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서기 651년은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인도는 6세기 말에서부터 11세기 초 사이에 중국, 일본, 대한민국으로 동아시아 해상항로를 개척하였다.

인도의 Chola Empire 시대의 동아시아 항로를 보면, 인도는 일본을 가기위해서 한반도 남해안과 제주도 사이를 항로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 중간 기착하였을 것으로 본다.

인도와 한반도의 교류시기는 빠르면 6세기말에 삼국시대와, 늦어도 8세기에 통일신라와 무역 및 교류를 시작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 8세기 초기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고대항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며, 특히 중국의 당나라, 통일신라가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해상항로를 통한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중국의 선단은 5세기 이전에는 말레이 반도를 넘지 못하였고, 7세기 말에서 9세기 초 사이에 서역으로 가는 고대 해상 실크로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6) 고대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의 광주에서 멈추었던 것이 아니고, 한반도까지 이어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였다.

* First Author : g7510@mmu.ac.kr